

새로운 가치 창출 통해 글로벌 패키징 기업 발돋움

토탈 패키징 솔루션 제공



박 홍 식

한솔PNS(주) 패키징부문 대표이사

정보화 사회의 다양한 라이프스타일(Lifestyle)은 이제 전통적인 패키징 산업의 변화와 혁신을 요구하고 있다. 시시각각으로 변화하는 시장의 트렌드와 소비자의 니즈에 부응하기 위하여 많은 기업은 탈대량화, 다양화, 지식기반 생산과 변화의 가속화를 추구하고 있다.

포장 산업에서도 패키징 종합 솔루션을 제공, 새로운 지식서비스를 통해 고객만족을 실현시키며 경쟁력을 키워 나가고 있다.

한솔그룹의 SI기업 한솔텔레콤은 지난 6월 27일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존슨앤존슨 등 화장품 및 생활용품 업체에 포장재를 공급하는 대영인쇄를 인수하고, 한솔PNS(Packaging & Solution)로 상호명을 변경하여 토탈 패키징 솔루션 서비스 사업에 본격 진출했다.

한솔PNS(주)(패키징부문 대표이사 박홍식)는 신뢰를



▲ 한솔PNS(주)는 고객요구에 의해 포장두부에 이지필을 적용 시켰다.



▲ 성수동에 위치한 한솔PNS(주)

바탕으로 기술과 문화, 이미지가 접목된 지식기반 제조(패키징 설계, 개발, 제조)와 서비스(조립, 충전, 보관, 물류)의 결합을 통하여 시장과 고객의 변화와 요구에 부합하는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기존 제조업 중심의 패키징 산업에, 디자인 및 마케팅, 제품의 충전 및 물류 등의 부문을 연계하여 Total Packaging Solution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서비스 가운데 인쇄, 포장재 가공 등의 패키징 제조분야는 기존 업체들을 활용하여 아웃소싱을 하고 개발, 디자인, 충전 등의 패키징 서비스 분야에 회사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한솔PNS는 IT 사업부문에서 축적된 고객별 맞춤형 솔루션 서비스 역량을 바탕으로 새로운 패키징 및 디자인 개발, 패키징 대행, 충전, 물류서비스

등 토탈 패키징 솔루션 서비스 사업을 강화해 기존의 제조 중심의 패키징 회사와 차별화하고 있다.

토탈 패키징 솔루션 서비스 사업을 표방하고 있는 한솔PNS는 고객사들의 제품 생산이나 마케팅에 필요한 종이, 플라스틱, 필름 등 다양한 소재를 개발, 보급하는 한편 디자인, 인쇄, 포장 및 충전 대행, 물류 등 패키지 관련 서비스 뿐만 아니라 패키징 컨설팅 제공까지 포함하는 패키징 관련 전 분야를 포함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서비스 가운데 인쇄, 포장재 가공 등의 패키징 제조분야는 기존 업체들을 활용하여 아웃소싱을 하고 개발, 디자인, 충전 등의 패키징 서비스 분야에 회사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박홍식 대표이사는 "21세기 지식기반 산업인 패키징 산업이 그 중요성에 비해 인식이 다소 과소 평가되고 있다"며 "한솔그룹이 패키징 산업에 진출한 만큼 지식서비스를 강화하여 정보화 산업에 걸맞은 비즈니스를 창출하여 포장업계의 이미지를 업그레이드 시킬 것"

HANSOL

이라고 말했다.

“일반 소비자 생활 속에 깊숙이 위치해 있는 포장은 시장의 반응을 가깝게 인식할 수 있는 21세기 주요 산업입니다. 고객에게 새로운 기술과 제품, 소재, 서비스를 창출함으로써 포장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한솔PNS가 제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한솔PNS는 인수한 대영인쇄를 패키징 재료 생산 업체가 아닌 고객사들과 최종 소비자들을 위한 새로운 패키지를 개발, 실험을 위한 R&D 센터(가칭 Inno Center)로 육성하고 있다.

이를 위해 현재 미국 미시간주립대 출신의 석, 박사들을 채용하는 한편 경험 많은 일본 패키징 전문가와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선진 패키징 산업의 동향 정보와 기술 노하우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또한, 국내에서도 패키징 분야의 전문가들을 확보하고 향

후 유능한 패키징 전문가들을 양성하는 등, 국내 패키징 시장이 제조중심의 패키징 사업에서 지식기반의 고부가가치 솔루션 서비스 사업으로 성장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매진하고 있다.

고객과 동반 성장을 목표로 국내는 물론 해외시장에서도 고객사들의 니즈를 이용하는 R&D 중심의 토탈 패키징 솔루션 서비스 사업을 추진, 중국을 필두로 하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과 동유럽, 라틴 아메리카 등 향후 중요한 패키징 시장으로 성장이 예측되는 해외 신흥 시장에서 시장 주도권 확보를 위해 경영 역량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한솔PNS는 녹색 성장에 집중하고 있다.

“최근 환경파괴에 대한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다양한 국가에서 친환경적인 제품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3R(Reduse, Reuse, Recycle)이 가능한 포

장재가 더욱 각광을 받고 있으며 세계적인 기업들은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한솔PNS는 패키징산업이 녹색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이미 한솔제지는 지난 4월 환경 보호 국제 인증인 FSC(Forest Stewardship Council) 인증을 획득하며 친환경 기업으로서의 이미지 제고는 물론 북미, 유럽 등 선진 시장으로의 수출길을 활짝 연 상태다.

FSC란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이 시행되는 숲에 FM(Forest Management, 산림관리) 인증을 부여하고 FM 인증 산림에서 채취한 목재를 사용한 제품의 제조 및 유통과정 단계에 CoC(Chain-of-Costody) 인증을 부여함으로써 숲에서부터 최종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전 과정을 추적 관리하는 제도이다.

한솔PNS는 한솔제지가 획득한 FSC 인증 제품을 적용하여 선진국 요구사항에 맞춰 패키징을 제작, 글로벌 기업으로의 도약은 물론 녹색정 책을 통해 선도적 역할을 할 계획이다.

최근 패키징 산업을 일류산업으로 한단계 끌어올리겠다는 한솔PNS의 포부와 달리 인쇄업체의 반발로 어려운 난관에 부딪히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국가의 경쟁력은 중소기업이 탄탄해야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인쇄업계는 우리의 거래처입니다. 한솔은 패키징 산업을 위해 서로 함께 협력하여 상생할 수 있는 일을 모색하고 윈-윈할 수 있는 전략을 펼칠 예정입니다. 패키징 사업과 관련해 한솔은 패키징 디자인과 물류, 컨설팅을 포함한 도넛 솔루션의 측면에 사업을 다각화하고 있습니다. 인쇄업체의 생존권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홍식 대표는 “일부 인쇄업계에서 오해하는 것과 달리 한솔PNS의 산업은 종이, 플라스

틱, 유리소재 등을 활용한 패키징(포장) 시장”이라며 “인쇄업계가 주력으로 하고 있는 출판 인쇄 부문에서는 더 이상 시장을 확장할 계획이 아닐 뿐 아니라 영세업체들의 상업인쇄 시장을 빼앗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한솔PNS는 그래픽 디자이너의 스케치 및 아트워크 지원 툴, 3-D CAD, 등을 통해 컨셉을 개발하고 신속한 prototyping을 통해 제품 디자인 관련 불편 사항을 최소화하고 있다.

또한 각종 labeling 옵션을 통해 상업화 단계에서의 고객 설비 부담 최소화 및 time-to-market 단축하고 있으며 강도, 물성, 환경 테스트 등 각종 테스트를 위한 샘플을 제작하고 신속한 몰딩 설계 변경을 통한 생산 유연성 확보 및 비용을 절감하고 있다.

특히 패키징에 필요한 여러 종류의 재료를 동시에 사용하여 생산성을 늘리고 multi-layer unit tool을 제공하고 패키징의 lifecycle을 추적해 관리하는 독특한 프로젝트 관리 시스템을 구축했다.

한솔PNS는 성공적인 패키징 산업 진출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국내외의 우수인력을 확보하여 고객의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연구/개발 능력을 갖추어 나가고 있다.

기업활동의 사업다각화 진입 기에는 무엇보다 통찰력이 요구된다.

신상품을 출시하고자 준비할 때에도 역시 이 통찰력은 어김없이 기업의 사활에 영향을 준다.

박홍식 대표는 직원들에게 통찰력을 강조한다.

박 대표는 “다가오는 소비자의 추세를 간파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자신의 역량을 그에 맞추어 미리 준비하여 때가 왔을 때에 유감없이 실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내 최고의 도넛 패키징 솔루션 종합회사로 역량을 확대하여 패키징 패러다임을 빠르게 갖추고 있는 한솔PNS.

한솔PNS의 계획대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여 포장산업이 일류산업으로 발전하길 기대해 본다. ☞

이한얼 기자